

국악교육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이 성 천
서울대 국악과 교수

1. 머리말

대학에서 국악교육을 흡수한 것은 1954년 덕성여자대학의 음악과에 국악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덕성여대는 국악부와 양악부를 두고 각각 3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국악부 설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양악이론의 한국적 섭취와 국악에 있어서의 민족적 요소의 발견—이것이 기반이 되어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성을 띤 한국민족음악이 창조되어야 할 것을 우리 민족이 다같이 갈망하고 있는 이 때 성스러운 과업을 해결코저 본 대학 음악과에서는 국악부와 양악부를 두어 국악과 양악의 이론 및 실기를 겸하여 수련시키는 한국 최초의 특색있는 음악과를 창설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큰 뜻을 가지고 출발한 덕성여대의 국악부가 1956년 음악과의 폐과에 따라 양악부와 함께 그 존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년여 만에 국악교육이 대학에서 사라지려는 것이었으나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창설됨으로써 국악교육은 회생되었고, 오늘의 국악교육을 대학으로 확장시키는 모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악교육은 자생적이며 자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으로써 또는 교육교재를 인용하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본 오사카 음악대학 방악과(邦樂科)가 유일한 자국음악 교육기관이지만 일본 사회환경과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는 판이하므로 그들의 교육을 원용할 만큼의 표준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국악과는 서양음악으로 교육되어 온 사회, 서양음악 중심의 여건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긴박성과 발전해야 하는 개척정신에 의해 존재가 가능하고 그 존재는 자생적이고도 자구적 노력에 의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인이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과는 외부의 힘이 역작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제외하고 내부적 성장속도를 느리게 하며 동시에 교육적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국악과의 제반 현황을 밝히고, 국악과

국악전문인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대학의 국악과

대학의 국악과는 1959년에 창설된 서울대 국악과로부터 1987년에 인가된 청주대학교의 국악과까지 모두 12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대학교육』지 1987년 1월호(통권 25호)에 발표한 필자의 “국악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의 내용보다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북대학교에 국악과가 창설되고 국악과 전임교수가 11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발표된 글에는 석사과정인 아닌 체계에 술학교와 서울예술전문대학을 포함시켰으므로 실제 증가된 전임교수는 16명이 되는 셈이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창설된 이후 근 30년 동안 12개 대학에 국악과를 설치하고 약 60여 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 준다.

첫째, 국립과 공립대학 24개교 중에서 국악과가 5개 대학이며, 전국 대학의 음악대학 또는 음악과 65개 중에서 12개교만이 국악과를 설치한 사실로 보면 국악과의 존치가 극히 미약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국악과가 증설된다는 것은 국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악과는 12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서울시립대와 서원대, 계명대, 목원대 등은 국악전공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국악과 배출학생수는 〈표 1〉에 나타난 수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국악과와 국악전공 및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수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의 수요와 대학의 공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요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급이 일방적으로 증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더욱 확산시키는 부가가치적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둘째, 국악과 교수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수요원에 대한 교육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교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교수요

〈표 1〉 전국 국악과 현황

(1994년 3월 현재)

대 학 교	소속단과대학	설치연도	학생정원	전임교수
서울대	음악대	1959	29	5
한양대	음악대	1972	30	4
이화여대	음악대	1974	30	6
중앙대	음악대	1983	30	4
부산대	예술대	1983	30	6
영남대	음악대	1983	30	5
경북대	예술대	1983	30	6
단국대	예술대	1984	30	4
전남대	예술대	1984	30	5
전주우석대		1985	40	5
청주대	예술대	1987	30	5
전북대	예술대	1988	30	3
계			369	58

원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동시에 사회교육에서 습득한 깊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수준은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설치된 국악과의 교육이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에서의 여건성숙에 기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악과와 교수의 수가 증가하는 데 따르는 질적 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소지가 많으므로 다른 항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3. 국악과 교육과정과 운용

국악과는 대체로 4개의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전공, 성악전공으로 나누

는데 이들 전공은 하나의 학과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공별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악은 외래적인 것이 아니고 내국에서 형성된 예술체이므로 국악이 지방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지방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방문화와 관계된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전국 12개 국악과의 교육과정을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서울대, 중부지역의 전주우석대, 그리고 남부지역의 부산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전공 종류는 모든 국악과가 동일하므로 표에서는 제외한다.

학년 학기가 지정되지 않은 서울대학교의 자유선택과목은 뒤의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에서는 교직과정 이수과목은 열거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그 대학 또는 학과의 교육목표와 방

<표 2>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육과정

학 년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1	시창정음(국·서) 화성법 및 건반화성(서) 국악관현악	
2	화성법 및 건반화성(서) 국악관현악 특수악기(거문고-작곡·이론) 연주 서양음악사 및 문헌(서)	
3	국악사 국악분석 특수악기(거문고) 국악관현악 연주	전통무용론 개화기음악사(서) 음악사회학(서) 음악심리학(서)
4	국악관현악 졸업연주	한국아악감상 한국악기론 민속악감상 국악문헌

향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표에서 나타난 대로 지역적 특성을 보유한 교육과정이라고 보다 서양음악계통의 과목들을 전공선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서울지역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국악이라는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성이 희박한 대신 서구문화와 그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또 하나,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국악과가 국악전문가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사회현상을 인정하고 서양음악의 지식도 갖춘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육과정은 국악 관계과목을 중심으로 일부 비서구음악과 서양음악

관계 과목으로 편성된 열린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주우석대 국악과는 전공필수과목으로 전공실기를 제외하면 합주, 합창, 음악개론, 연주를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각 학년 학기에 따라 필수에 해당하는 선택과목을 정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다. <표 4>의 교육과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와 교육과의 연계성이 뚜렷하다. 국악연습과목은 남도민요 부르기와 반주를 학습내용으로 하고, 국악장단은 산조, 판소리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판소리개론이나 남도음악론 등 다른 지역의 국악과에서 볼 수 없는 과목들을 제공하고

<표 3>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자유선택과목

국악 및 비서구음악계통 과목	서양음악계통 과목
가곡	음악소프트웨어실습
국악합주	개화기 음악사
국악반주법	음향학개론
민속예능론	대위법
일본음악	
중국음악	
인도음악	
민족음악학개론	

<표 4> 전주우석대학교 국악과 교육과정

전공선택(실기) 과목	전공선택(강의) 과목	전공선택(서양음악관계강의) 과목
국악가창	국악사	서양음악개론
국악연습	판소리개론	시창청음(피아노 중심)
국악실내악	남도음악론	화성법
반주법	국악문헌	대위법
국악장단	악기론	건반화성
무용클레스	동양음악론	피아노 클래스
관현악실습	악곡분석	음악사
	원서강독	지휘법
	음악학개론(한국음악학)	

있다. 이것은 지방문화육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국악실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공에 포함되지 않은 소금과 단소 실기, 가곡 실기와 국악형식을 망라한 반주법과 준앵진, 살풀이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실기를 섭렵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이 점은 국악을 전공하는 음악인으로서 전통적 악·가·무를 겸비한 교육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아노와 관계된 과목들은 교직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서양음악관계 과목들은 모두 기초학문에 속하는 것이다. 이 편제도 최소한의 서양음악 지식을 습득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며 이 역시 지역

적 특성이기도 하다.

〈표 5〉에서 보는 대로 부산대 국악과는 국악관계 과목을 필수로 하고 서양음악관계 기초과목을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은 서울과 같이 지역문화와의 관련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국악과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세 지역의 국악과를 표본으로 삼아 알아 보았다. 국악과의 분포를 세 지역으로 나눌 수는 없겠으나 12개 국악과 중에서 나머지 9개 대학의 교육과정도 이 세 지역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악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표 5〉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육과정

학 년	전공필수	전공선택
1	국악시창 국악개론 국악관현악 리사이틀·세미나 택1 공동실기	
2	정악감상 민속악감상 전통음악합주 국악관현악 리사이틀·세미나 택1	단소실기 국악반주법 정가 특수악기 서양음악관계과목(화성법·양악시창·서양음악사)
3	국악문헌 한국음악사 국악관현악 리사이틀·세미나 택1	국악기론 타악기실습 국악관악합주·국악현악합주 택1 국악분석 창악(판소리) 특수악기 세계음악문화
4	국악원전강독 국악관현악 리사이틀·세미나 택1	한국예술론 국악교육방법론 국악실내악 특수악기 서양음악관계과목(지휘법, 서양음악문헌)

첫째, 개설된 과목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도 일정하다.

둘째, 서양음악관계 과목은 기초음악에 한정되고 있다.

셋째, 지역문화 보존도가 높을수록 지역문화관계 과목을 편제하고 있다.

넷째, 전통음악양식관계 과목에 편중되어 있다.

4. 발전을 위한 과제와 개선

1) 제도적 문제

대학의 국악과는 흔히 네 개의 전공으로 분리되어 있다. 작곡, 이론, 기악, 성악 등 네 전공이 하나의 과에 소속되어 있다. 네 전공은 실기의 특수성은 물론 전공별 개별성도 농후하다. 특수성과 개별성이 요구되는 각개의 전공을 국악과로 합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데에 제도적 문제가 제기된다. 국악실기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과단위의 교육과정으로 성장되기는 어렵다. 전공실기만으로 충족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제한된 이수학점 내에서 전공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전공실기시간은 주당 1회 50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입학시험 전에 비해 대학을 졸업할 당시 실기 능력이 퇴보되었다는 학생들의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국악과를 해체하고 국악부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국악부 내에 작곡과, 이론과, 기악과, 성악과를 설치하여 각 과별로 학사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악교육이 전통적으로 도습교육으로 진행되던 것이 제도교육으로 변화됨으로써 야기되는 교육방법의 문제와, 1959년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창설될 당시 교과과목의 미비 및 교수 요원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만든 제도가 그후 이에 대한 검토나 비판 없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12개 국악과가 여러 전공을 하나의 학과로 묶어오고 있는 것이다.

2) 교과목 개발

현재 여러 국악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국악개론과 국악사 두 과목이다. 실제로 이 두 교과목은 참고서적이 출판되었으므로 쉽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나머지 교과목들은 참고서적이 전혀 출판되어 있지 못하다. 국악관계 교과목이 약간씩 다른 명칭으로 개설되고 있으나, 이것마저 담당교수의 개별적 교수방법과 수업준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악과에서 개설해야 할 많은 교과목이 필요하지만 전공별 교수의 다각적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악과의 학생은 제한된 지식만을 습득하고 학사증을 받게 된다.

이론전공 교수만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기 전공한 분야별로 해당분야의 연구가 축적될 때 그 분야의 저서가 출판되고 참고서가 제작될 수 있는 것이다.

3)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

개설된 교과목수가 적다는 것은 이론의 연구가 미흡한 결과라고 앞에서 말했다. 또한 교과목수가 적다 하더라도 각 양식의 음악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음악 양식에 관련된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통음악양식이라면 정악과 민속악을 뜻하는데, 이 밖에 현대음악도 이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비유한다면, 국문학과에서 고전만 교육하고 현대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피아노 전공자에게 베토벤을 치게 하고 드뷔시를 제외할 때 그 교육적 과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과거의 지속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악교육은 과거편향주의에서 미래지향주의로 지향하는 개혁이 요구된다고 본다.

교육과정의 전통편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대음악관계 교과목 확충이 있어야 한다. 현대음악관계 교과목 확충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연구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 실기담당교수의 현대음악 연주기능이 전통음악만큼 우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통음악에 편중되어 있고 전공지도교수가 전통음악만을 수업할 때 현대음악을 교과목으로 설정한 것이 교육적 효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어느 한 음악양식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그 균형이 교육효과로 연결되려면 전공지도 교수는 폭넓은 연주기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앞서 말한 실기교수의 해당분야연구와 폭넓은 연주기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면에서 교수의 질적인 면을 언급한 것이다.

4) 기악실기의 세분화

국악과의 작곡, 이론, 기악, 성악의 네 전공 중에서 작곡과 이론은 대학과정에서 더 세분될 필요는 없었고, 성악은 정악(가곡·가사·시조)과 민속악(민요·잡가·판소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악은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등 5개의 전공으로 세분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에 보존되어 있는 국악기는 60여 종이 넘는데, 이 중에서 제례용 악기가 대부분이고 연주용 악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관현악에 편성되고 악기 전부 대학의 교육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양금, 아쟁, 타악기(쟁과리·북·장구), 단소(당적 포함) 등의 악기는 전공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쟁과 타악기는 일부 국악과가 전공교육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모든 국악과가 기악전공 종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악기에 대한 전문화와 악기의 연주기량이 발전하며 관현악이 향상된다.

이런 점에서 이들 악기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악곡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악과가 5개 기악전공을 개설한 것은 전통음악만을 그 교육자료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이런 면에서도 현대음악이 교육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다.

5) 진로 문제

민주주의사회의 교육은 기획화될 수 없다. 사회의 수요만큼 교육이 공급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국악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가내수공업적 도습제도에서 다량생산적 학교교육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다량생산이 사회의 수급과 균형을 이룰 리 만 무하다.

기악전공은 관현악단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작곡, 이론, 성악전공은 활동할 무대가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작곡은 곡을 쓰고, 이론은 논문을 쓰며, 성악은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무대에 서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보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악교실을 열어 국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전문가가 전문 활동을 할 때 그 분야는 향상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국악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활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국악교육의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해 보았다. 국악교육은 전통음악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성립된 음악교육의 한 분야이다. 음악과 교육을 외국으로부터 수용한 서양음악교육과 달리 국악교육은 음악과 교육이 자생적이며 자구적이다. 우리 손으로 하나의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한 사람의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전통음악연주는 물론 현대음악까지 포함할 때 손이 달리고 시간이 촉박한 터에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오는 그 여건은 어지간한 축적로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서도 교육자료를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균형적 교육이라는 당위성과 국악과가 전통음악보존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악교육은 손이 달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도 국악과는 영세학과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